

Date: 28 Nisan 5786 (April 15, 2026)

Torah Portion: Metzora

Topic: 삶은 베품이다

레위기 14 장 2 절에는, 나병 환자 (metzora)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תורה 토라)는이러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남자가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 34:12-13)

미드라시(Midrash)는 '메쪼라(מצורא, ~나병 환자)'라는 단어가 '모찌 켄 라(מוציא שם רע)', 즉 "악한 이름을 퍼뜨리는 자(비방하는 자)"의 축약어로 이해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짜라아트 병변이 여러가지 죄의 결과로 올 수 있지만, 왜 토라는 특별히 '라손 하라(lashon hara, 악한 말/비방의 말)'를 암시해주고 있을까요?

라쉬(Rashi)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미드라시를 따라 '라손 하라'가 특별히 지목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죄가 유독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은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자까지 세 사람을 그 순간에 해칩니다. 이는 관계 자체를 통해 부정된 세력을 퍼뜨리고,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유대감을 녹아 내버리며 부식시키는 죄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미다 크네게드 미다(midah k'neged midah, 행한 대로 받는 보응)'에 따라 진영 밖으로 격리됩니다. 그가 자신의 비방하는 말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시는 시편을 인용하여 더 깊은 답을 제시합니다. 생명 그 자체가 언어의 올바른 사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짜라아트 (나병 비슷한 병)을 부르는 여러 죄 중에서도 '라손 하라'는 생명의 근원을 타격합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이 실패를 강조함으로써, 언어의 오용이 단순히 수많은 죄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네뱀쉬(피안에서 육신을 움직이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21:23). 악한 말을 삼가는 사람은 곧 "생명을 사모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마이모니데스(Rambam)는 '힐코트 데옷(7:3)'에서 이 개념을 심화시킵니다. 그는 '라손 하라', 곧 비방하는 말이 종종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영과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비방은 회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자아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썼습니다. 비방의 악한 말은 일상이 되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 언어의 구조 속에 박혀버립니다. 이런 결과로, 그것은 드러 내놓고 짓는 죄보다 더 위험한데, 아무런 저항 없이 말하는 이의 성품을 재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왜 언어가 이토록 성품을 재형성 할만큼 핵심을 이루는가?

그 이유는 발생 된 언어가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을 드러내고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타냐는 인간의 언어가 아담에게 불어넣어진 "נִשְׁמַת חַיִּים (네뱀쉬 하이야;살아있는 영혼)"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창.2:7). 따라서 언어는 인간 내면에 깃든 신성한 형상의 일차적인 증거이며 표현입니다. 언어가 진리와 격려, 거룩함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신성한 생명력(shefa)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반면 타락한 언어는 그 흐름을 막고 에너지를 분열과 은폐의 방향으로 돌립니다.

타인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내면에서 스스로를 올리는 가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더 낮아지면, 내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생명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여호와와 토라의 총괄적 관점에서 생명이란 자기 고양(self-exaltation)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기 환원(self-giving)입니다.

토라는 솟아나는 샘을 '마임 하임(mayim chayim)', 즉 '살아있는 물'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샘은 자신의 근원(makor)으로부터 끊임없이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샘은 취하지 않고 넘쳐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말과 행동, 그리고 존재자체를 통해 타인에게 '하임(מים,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네짜림 갱신서의 예호슈아의 말씀에도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 12:34).

여기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혀는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들춰냅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언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무질서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발성하는 언어를 정련하는 것은 그 마음과 심장 자체를 정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야고보서 3:6).

이는 후대 현인들의 이해와 궤를 같이합니다. 언어에는 생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여러 층의 세계를 세울 수도,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거룩하신 분께서 "엘로힘(권능자)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역시 말을 통해 창조하거나 파괴합니다.

네다림 64b 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부류의 영혼들을 나누며 이 영혼들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들의 결론을 맺습니다. 랍비 하임 슈몰레비츠(R' Chaim Shmulevitz)는 이들의 공통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감퇴'라고 설명합니다.

가난한 영혼의 빈곤한자,
비방으로 젖어 버린 짜라아트(나병) 환자,
맹인인 자, 그리고
후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무자녀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곧 '베푼'으로 정의됩니다.

열매나 땀별로부터 쉼의 그늘, 향기와 아름다움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무는 비록 서 있을지라도 다른 생명을 세우는 생명력이 부재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느 한 부족한 부분이 마추어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관계가 존재할지 모르나 영혼을 성숙시키는 생명력은 쇠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라손 하라'를 일삼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 중 하나입니다.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베풀이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대신, 생명을 축소시키는 자가 됩니다.

현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사람은 걷고 있으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엄중함과 격려로써 여호와와 계명 곧 생명인 완전한 진리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makor)이 되는 것입니다.

'라손 하라'를 피하는 것이 단순히 절제가 아니라 '변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신성한 생명(하임)의 흐름과 일치시킵니다. 타냐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성하는 말은 인간을 더이상 생명력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깨끗한 언어의 통로로써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것이 나병 환자(metzora)의 규례(Torah)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는 더 깊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창조주의 신성한 선물인 언어를 오용한 자(motzi shem ra)를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짜라아트에 관한 법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육신 내면의 영에 대한 진단이며, 그 흐르는 혈내의 네웨쉬(영혼)의 구원입니다. 발성된 언어가 초래한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고 인간, 곧 사람 사이를 다시 생명력으로 정렬된 건강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생사와 화복이 참으로 혀의 권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잠언 18:21).

깨끗한 언어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샬롬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여호와 네 엘로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여호와 네 엘로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30:14-16)

*땅: 육신; 지정하신 땅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엘로힘(권능자)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권능자니라
 그 [예호슈아]가 태초에 [여호와] 권능자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1:1-4)

“여호와께 그 스스로 연합한 우상숭배자*의
 아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아도나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56:3-8)

*우상 숭배자 (עֲבָדֵי הַתְּמוּנָה 한네카르)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정치 고문 세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하고 그것을 제작하여 판매하며 정치와 경제적 기반을 누리고 있던 처소를 떠나서 여호와 엘로힘께로
 연합하였던 나카르의 아들이었다.

-Book of Just

(Ref. 수. 10:13; 삼하. 1:18)